

A Study about a Woman Headdress of Korea and Japan

Sung-Ju Lim* · Hwang-Oak Soh

Chung-Ang University* · Chung-Ang University

A Korean seniority culture was handed down at Japan in cultural exchange. The both countries were based on their original natural features and made peculiar clothes forms. This paper was based on such features and focused on their woman headdress research and looked into representative forms of the headdress to develop in different situations each, looking into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lso.

The Chosun period used the headdress to be hidden by going out the face. Neoul of the headdress of Goryeo period's standing was higher than different kinds of the headdress. The form was achieved with thin woven stuff (Neouldeuling) and the bamboo hat. The seeing part of Neouldeuling like the bag was possible to be located in the face with the woven like the gauze. For simple use, the sseugaechima instead of Neouldeuling be worn for going out was like the form skirt. The skirt waist (sseugaechima) surrounding a face circumference was ordinary of the degree wrinkles skirt which sizes at the hand. Janguui (similar with the overcoat)'s the collar was a right and left symmetry. And the Goleum runs to the collar and should tie. In addition, the headdress of women was Jounmo. It was composed of the oilpaper and was possible to put writes a letter and figure. It was used for the headdress of the people of lower classes. The woman of the nobility wore the Hakama (袴) at a period middle and latter term of the Heian (平安). They wore a raised Uchiki with short Hakama and then

went out. The Uchiki was clothes to wear in there when the woman of the nobility wears the Uwagi and Gouchiki. When used it to the head-dress, used the Gakeobi-the belt to tie over there-and are fixed it. The Gosode was used for important clothes at Heian latter term to the Kamakura period. So they removed the hakama and wore Heetoe or Uchiki at it upside and when they went out, they wore it and raised. We call this head-dress 'Sseubosojoku (壺裝束)'. They wore the Uchiki with this and used the Ichimagasa (市女笠) which was the kind of plain bamboo hat. And they sometimes added the Mosi called 'Musinodaraeginoo' at it. The gosode changed into the outer garments in the underwear at the period of the Mulomachi. As going out frequent, the people of the this period covered the head to arrange the hair with woven. The people bound and used the gosode on the head and added the woven at its collar.

The outfit was arranged and changed the Gosode as the headdress into 'Gajeuki (被衣)' in Edo period. The headdress of Korea and Japan women showed a change aspect to similar form at same age like this, and the method of the woman ceremonial dress for going out was various development the low. The form of the clothes which the headdress was changed shows different aspect little by little but shows the similarity in a cause of development, usage, feature.

한국과 일본의 여성 쓰개에 관한 연구

임성주* · 소황옥

중앙대학교 * · 중앙대학교

한·일 문화의 교류는 대륙으로부터 전해 받은 문명을 기초로 한 한국적 선진 문화가 섬나라인 일본에 전수되었고, 양국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의 문화 이입과 수용의 과정을 거치며, 양국의 고유한 지리적·문화적·풍토위에 독특한 복식의 형태를 만들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특징 아래, 여성의 쓰개류에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발전한 여성 쓰개류의 유형과 형태를 살펴보았다.

내외법이 심하였던 조선시대는 외출시에 얼굴을 가리기 위한 쓰개를 사용하였다.

너울은 고려시대의 쓰개가 전해진 것으로 기마할때의 쓰개로서 다른 종류의 쓰개보다 격이 높다. 이는 궁중양식 또는 반가양식으로 상류계급에서 사용하였다. 형태는 입자(笠子)와 드리운 얇은 천(너울드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울드림은 포대자루처럼 되어 있는데 얼굴에 위치하는 부분은 망사같은 천으로 투시가 가능하였다. 쓰개치마는 상류층의 '너울'대신 간편하게 쓴 형태로 치마와 같은 것으로, 치마 허리가 얼굴 둘레를 두르고 손에 쥘 정도의 보통의 주름 치마였다. 장의(長衣)는 두루마기와 그 형태가 유사하나 깃이 좌우 대칭이고 고름이 깃밑으로 달려서 매도록 되어 있으며, 소매 끝에는 백색의 거들지를 붙이고 깃 뒤 머리가 닿는 부위는 백색의 천을 덧대어 더러움을 방지하였다. 또한 부녀자들의 쓰개로는 넓은 갓과 유사한 형태인 전모가 있었다. 이는 유지(油紙)로 만들어 문양이나 글자를 넣기도 하였으며 하류층의 쓰개로 쓰였다.

무사 정권인 일본의 헤이안(平安)시대 중·후기 공가 부인의 예복차림은 하카마(袴)를 착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짧은 하카마

를 입고 우치키(袷)를 걷어 올리고 신사나 절에 참배하는 등 외출의 복식을 형성하였다. 우치키는 공가의 부인이 우와기와 고우치키(小袷)를 입을 때 안에 입는 옷으로, 이를 쓰개로 사용할 시에는 입지 않고 머리에 덮어쓰고 앞에서 맨 띠인 가케오비(袴帶)를 걸어서 고정하였다.

헤이안 후기에는 가마쿠라시대까지 고소데가 중요한 옷으로 쓰이게 됨에 따라 하카마를 없애고 고소데위에 속저고리 격인 히토에(單)나 우치키를 착용하였는데, 착용시에는 이를 걷어 올렸다. 이와 같이 우치키 등을 짧게 착용하는 것을 쓰보소조쿠(壺裝束)라 한다. 이와 함께 우치키를 입고 평편한 샅의 일종인 이치마가사(市女笠)를 쓰거나 모시로 만든 '무시노다래기누'라는 천을 붙인 이치메가사를 쓰기도 하였다.

이후 무로마치시대에 이르러 속옷인 고소데가 겉옷으로 변하였고, 외출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두발을 처리하기 위해 백이나 흑의 천으로 머리를 싸게 되었는데, 이런 머리를 더욱 정중하게 하기 위해 고소데를 머리에 덮어 쓰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고소데의 깃에 천을 기워 붙여서 머리에 묶어 쓰게 되었다. 에도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복장이 정돈되어 쓰개로서의 고소데는 가즈키(被衣)로 변화한다. 가즈키는 보통의 고소데와는 달리 깃의 구리코시(繰越)가 앞으로 와서 덮어쓰기 쉽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한·일의 여성의 쓰개류는 동시대에 비슷한 형태로의 변화 양상을 보이며, 여성의 예장의 방법으로서 외출용으로 다양한 발전을 하였다. 쓰개가 변한 의복의 형태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쓰개류가 발전하게 된 계기나 사용 방법, 형태는 한국과 일본 복식의 유사성을 보인다 하겠다.